

독일의 정당 통합과 그 시사점

고상두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객원연구원

머리말

민 주주의가 제도화되고 공고화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탈사회주의화란 정당 정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일당독재체제에서 민주적인 다당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제도의 변화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치 참여자들의 행위 결과이다. 저항 엘리트에 의해 공산당 일당 지배가 무너지고,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이 수많은 정당을 만들어내고, 일반 국민들이 신생 정당에 대해 다양한 선호를 하게 된다. 그 결과, 정당간의 세력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구동독 지역의 정당제도를 보게 되면, 체제 붕괴 후 1~2년 사이에 형성된 정당 관계가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탈사회주의 사회에서 다당제로의 정치 발전에서는 초기의 정당 형성 과정이 그 이후 정당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며, 정치 행위자가 가장 중요한 변

수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고에서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에서 일어난 정당 발전의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탈사회주의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의 요인에 의해 동시에 영향을 받은 구동독의 정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서의 정당 발전도 구동독과 동일한 영향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구동독체제 변화의 특성

다른 동구 국가와는 달리 구동독의 정치 발전이 탈사회주의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영향 요인을 가졌다는 사실은 구동독의 체제 변화에 있어서 구서독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체제 붕괴 이전까지 구서독은 구동독 주민들에게는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향"이었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구동독의 생활에 불만스러웠던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여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1961년 8월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 수백만 명이 그러한 길을 택하였고, 그 후부터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수만 명이 그 뒤를 따랐고, 마침내 통일과 함께 온 국민이 구서독으로 간 셈이다.¹⁾

구동독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구동독의 정치 발전은 구서독의 정치제도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았고, 통일 조약의 조인 이후부터는 거의 그대로 모방되었다. 그리고 구동독의 체제 변화는 본 정부가 추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이전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동구의 체제 변화가 '내부적 변혁'인 반면, 구동독에서는 '외부적 변혁'이라는 예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²⁾ 다른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동구와 구동독의 사회주의체제가 동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변화하였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전자가 새로운 체제로의 변혁이라면, 후자는 새로운 체제로의 통합이었다.

또한 구동독의 정당 발전이 체제에 있어서 우월한 구서독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은 상대적으로 구동독 말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정치 행위자들의 허약성 때문이다. 탈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빈약한 정당 발전은 과거 공산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 결과이다.

구동독의 경우는 다른 동구 국가와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적인 강압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두 가지의 독특한 억압 수단을 더 사용하였다.

그 하나는 슈타지(Stasi)로 불리는 국가 공안부이다. 슈타지는 전국민을 사상적으로 통제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국가공안부에 매수되거나 협박에 의하여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동료로 염탐하였다. 통일 이후에 구서독 정부가 접수한 슈타지 문서는 도합 178 km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서 약 600만 명에 관한 조사 기록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구동독의 비밀경찰이 얼마나 광범위한 활동을 하였는지를 잘 보여준다.³⁾

또 하나는 구동독만이 가졌던 억압 수단은 구 동서독간의 장벽이다. 장벽의 도움으로 구동독 공산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체제 불만 인사들을 구서독으로 추방함으로써 불만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장벽은 폐쇄와 봉쇄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였다.⁴⁾

이러한 강압 정치의 결과로 구동독은 이웃 동구 국가와는 달리 시민 사회가 매우 미약하였다. 구동독에서는 시민 운동이 공적인

1) Dieter Segert und Csilla Machos(1995), *Parteien in Osteuropa, Kontext und Akteure*, Opladen, S. 205.
 2) Gerhard Lehmruch, "Institutionen, Interessen und sektorale Variationen in der Transformationsdynamik der politischen Ökonomie Ostdeutschlands," *Journal für Sozialforschung*, 34. Jg., H. 1, S. 24 f.
 3) 고상두(1997. 5.24), 「독일 통일과 과거 청산의 문제」, 한국국제정치학회 월례학술대회 논문집, p. 81.
 4) Claus Offe(1994),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Frankfurt a. M.: Campus, S. 254.

영역에서 조직되고 활동하지 못하였다. 물론 시민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교회의 테두리 속에서 80년대 초에 생성된 시민 운동이 널리 확대되지는 못하였다.⁵⁾

조직화된 시민 운동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동독의 붕괴는 대규모적이고 장기적인 대중 시위를 동반하였다. 다른 동구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었고 금새 없어져버렸다. 많은 개인들이 느끼는 분노는 곧바로 대규모 시위로 연결되었다. 대중 시위는 그 어떤 중앙 조직이나 정책 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중의 개인적인 결단에 의해 발생되었다.

구동독의 저항 엘리트가 가진 정치적 미숙은 구동독이 구서독과 정치체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구서독의 정치 엘리트의 지배적 위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구동독의 정치적 인물이나 조직은 구서독의 정치 집단으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을 때에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정치 자유화와 정당의 분출

체제 변혁을 정치 행위자라는 미시적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권력에 대한 정통성의 결여라는 요인이 독재 정권의

붕괴를 크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구동독 정권은 민주적인 정통성없이 억압적 수단에 의존하여 수십 년간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80년대 말에 구동독 정권은 이미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정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붕괴된 것이 아닌 것이다.

독재 정권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대안의 부재이다. 정치적 반대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개인이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취할 수 있는 행위란 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다.

체제 변혁의 과정은 권력층과 국민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설명된다. 권력층이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는 한 대중의 소요는 유혈적으로라도 진압된다. 그러나 권력층이 강경파와 자유파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는 후자에 의해 정치적 자유화가 대중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된다. 하지만, 정치적 자유화는 본격적인 저항 세력이 대두하도록 만들고, 국민들은 조직화된 정치 대안을 지지함으로써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권력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실행된 정치 자유화는 결국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되고 정치 민주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 자유화는 정치 민주화의 전제 조건이며,

5) 80년대 중반 이후 교회 내에 평화·환경·인권 그룹들은 비록 중앙 조직을 결여하고 있었지만, 느슨한 형태의 운동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시작하여, 구동독의 붕괴 때까지 300여 개의 조직이 참여하였다.

저항적인 정치 조직의 분출을 동반한다.⁶⁾

구동독에서도 탈사회주의 사회가 다당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집권 공산당의 분열과 탈당 현상 그리고 반체제 그룹의 이념적 분열에 따른 다양한 정당으로의 조직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된 군소 정당들은 선거에서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다시 소멸하고 말았다.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나서 특히 언론이 국가의 검열과 통제를 벗어나면서 정치적 자유화는 급속적으로 진전되었고, 정치적 민주화를 주장하는 많은 정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1일에 구동독인민회의(Volkskammer)는 구동독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던 구동독 공산당의 권력 독점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하였다.⁷⁾ 그리하여 장벽이 무너지고 약 4 개월이 지난 1990년 3월에 치러진 구동독인민회의 선거에는 23 개의 정당이 참가하였고, 그 가운데서 절반 정도인 12 개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였다. 의회에 진출한 정당 가운데서 2 개의 정당은 각각 1 개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소수 정당이었고, 합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원내에는 7 개의 정당이 활동하였다. 그 가운데서 주요 정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사당(PDS)

1989년 가을 이후 개혁 성향의 당원들은 특별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당의 지도부에 요구하였다. 호네커(Honecker)로부터 공산당 서기장직을 물려받은 크렌츠(Krenz)는 그러한 요구를 계속 묵살하다가 결국 그 해 12월에 특별전당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참석 대의원의 약 1/4이 당의 해산을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고, 기지(Gysi)가 새로운 당수로 선출되었다. 이듬해 1월에 당내 개혁주의자들이 다시금 당의 해산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관철되지 못하자 대거 탈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⁸⁾ 이러한 당내 파동이 휩쓸고난 후 공산당은 2월에 민사당으로 개칭되었다.

비록 민사당 당원의 97%가 과거 공산당원 출신이지만, 공산 관료 출신의 당원들이 대거 탈당 내지 축출됨으로써 당원의 성격은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1989년 10월에는 국가 관료, 경제 관료, 군인이 당원의 39.2%를 차지하였으나, 만 1 년 뒤에는 전체 당원의 37%가 연금 생활자, 주부, 실업자였다. 새로운 변화는 당의 사무국에서도 나타났는데, 4 만 4,000 명에 달하던 사무 직원이 4,000 명으로 감소되었다.⁹⁾

6) Adam Przeworski(1990), "Spiel mit Einsatz," *Transit - Europäische Revue*, H. 1, S. 191.

7) 황병덕(1996), 「동서독간의 정치 통합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p. 56.

8) Dieter Segert und Csilla Machos(1995), S. 212.

구동독 공산당 계승 정당인 사민당의 목표는 독재 정권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며, 구동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구동독의 붕괴를 막는 것이었다. 사민당은 독일 통일 전후 시기에 구서독으로부터 정치적인 지원을 받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었으며, 그러기에 홀로 고립된 정당으로 남았다.

연맹 90(Bündnis 90)

연맹 90은 대표적인 시민 운동 단체인 '지금 민주주의를(Demokratie Jetzt)', '노이에스포럼(Neues Forum)' 그리고 '평화 및 인권이니셔티브(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가 연합한 정당이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직은 '평화 및 인권이니셔티브'로서 1986년 1월에 만들어져서, 1989년 가을의 평화 혁명에 큰 기여를 하였다. 1989년 9월에 각각 결성된 '노이에스포럼'과 '지금 민주주의를'도 구동독의 민주화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실상 사민당을 포함하여 많은 시민 운동 단체들이 연합 정당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결렬되고 말았고, 위의 3개 시민 단체에 의해 창당된 연맹 90은 구동독인민회의

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민당(CDU)

구동독의 기민당은 구소련군 점령 당시 중도적 성향을 가진 당원 20만의 중도당(Zentrumspartei)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자민당과 함께 구동독 공산당의 위성 정당이었다. 위성 정당들은 공산당이 지배적 위치를 누리는 민족전선(Nationale Front)의 명목 하에 통합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공산당이 각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고,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였다. 위성 정당들은 공산당이 할 수 없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전달을 하였다.⁹⁾ 기민당의 경우는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위성 정당은 정치 활동을 하고 싶으나, 공산당에 입당하기를 원치 않는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도 하였다.¹⁰⁾ 구동독 시절에는 당원 수가 통상 9만 명 수준이었으나, 1989년 가을에는 14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 해 12월에 기민당은 자민당과 함께 민족전선을 탈퇴하였다.

9) Dieter Segert und Csilla Machos(1995), S. 218.

10) 황병덕(1996), p. 55.

11) Thomas Ammer(1992), "Parteien in der DDR u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 Mintzel und H. Oberreuther(Hg.), *Parteien in der BRD*,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S. 426.

자민당(FDP)

자민당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자유주의적 정당을 계승하여 나치 독일의 패망과 함께 창당되었고, 1946년에 20여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해 주 지방 선거에서 24.6%의 득표율을 획득할 정도로 큰 정당이었다. 그러나 공산 정권의 수립과 함께 위성 정당으로 전락하였고, 당원 수도 7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

1989년 9월에 당수인 겔라흐(Gerlach)가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비판한 것이 자민당의 인기를 급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어 당원 수가 순식간에 12만 명으로 늘어나기도 했다.¹²⁾

사민당(SDP)

기민당이나 자민당이 공산 독재 하에서 위성 정당으로서 명맥을 유지해온 반면, 사민당은 구동독 40 년간의 치하에서 소멸되었다. 구동독 공산당의 공식 명칭인 사회주의 통일당(SED)이 잘 말해주듯이, 과거의 사민당은 구소련군 점령 하에서 반강제로 공산당과 합당되었다. 따라서 1989년 10월에 교회 내의 반체제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사민당은 역사적인 연속성없이,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었다.

그러기에 다른 정당들이 공산당 일당지배 체제에 대하여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비판을 한 반면에, 사민당은 구동독 공산당의 합법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본질적인 비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사민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먼저 구서독 자매 정당과의 협력을 꾀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2월 라이프찌히전당대회에서는 빌리 브란트를 명예 총재로 추대하였다.

이 시기의 사민당의 인기는 최고조에 달하였다. 당시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구동독 주민의 과반수가 사민당을 선호하였다.¹³⁾ 그러나 구서독 사민당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점진적인 방식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하자 구동독 사민당의 인기는 급락하였고, 게다가 당수인 뵘메(Böhme)가 슈타지에 협조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구동독 주민의 정당별 선호도

1990년 3월 18일에 구동독의 인민회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자유 선거가 실시되었다. 유권자의 93.4%가 참가한 이 선거는 기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고, 사민당은 기민당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득표를 하였고, 시민 운동을 기반으로 한 연맹 90은 참패를 면치 못

12) Ammer(1992), S. 467.

13) Peter Förster und Günter Roski(1990), *DDR zwischen Wende und Wahl*, Berlin: Links Druck, S. 138.

〈표〉 구동독 인민회의 선거 결과

(%)						
CDU	DSU	BFD	SPD	Bündnis 90	PDS	기타
40.8	6.3	5.3	21.9	2.9	16	6.4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동독의 정치적인 독자성의 미약성과 구서독의 영향력이 심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민회의 선거 전에서는 통일 문제가 핫 이슈로 대두되면서, 통일의 열쇠를 쥐고 구서독의 정당들이 통일의 속도에 대하여 각자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구동독 자매 정당들의 득표율이 결정되다시피 하였다. 구동독 주민들은 이미 선거 한달 전에 통일이 구동독의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여겼다. 이점을 포착하여, 구서독의 기민당 정부는 그 해 7월에 화폐 통합을 실시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콜 정부의 신속한 통일 방식의 천명은 구동독 기민당에게 막대한 선거 지원으로 작용하였고,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한 사민당에게 타격을 주었으며, 개혁사회주의에 기대를 걸고 흡수 통일 방식에 반대한 연맹 90에게 선거 참패를 안겨주었다.

통화 통합은 구동독의 산업을 붕괴시키고, 대량 실업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콜 정부는 통일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깨고, 구동독을 지

원하기 위한 막대한 재정 자금을 마련하였다. 신속한 통일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구동독 주민들은 실업 문제에 직면하였고, 구서독 주민들은 세금 인상을 감수해야 했다.

신속한 통일의 후유증은 1993년에 접어들면서 매우 심각해져 구 동서독 주민간에 새로운 장벽이 생겨났다.¹⁴⁾ 통일 이후 독일의 정당은 구동독 주민과 구서독 주민의 대립적인 이해를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 수에서 적은 구동독 주민들이 정치적인 분배 결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마련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2년 여름에는 구동독 출신으로 구성되고, 초당적인 성격을 가진 '정의를 위한 위원회(Komitees für Gerechtigkeit)'가 결성되기도 하였고, 공산당 계승 정당인 민사당이 구동독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민사당은 통일로 인한 패배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동독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하여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구동독 주민들의 콜 정부에 대한 반발표를 얻

14) Spiegel, Nr.3, 1993.

음으로써 지역 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튼튼히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 이후 정당의 세력 구도를 보면, 구동독 지역에서는 사민당이 제3당으로서 지역적인 기반을 굳건히 하고 있고, 구동독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기민당과 경쟁한다. 반면에 사민당은 통일과 그 후유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늘 주역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¹⁵⁾

한반도 통일의 시사점

1989년 12월부터 구서독의 정당들이 본격적으로 구동독의 정치에 협력하고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서독의 정당제도만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구서독 정당간의 세력 구도까지도 그대로 이전되었다. 구서독 정당의 구조와 구도가 거의 복제된 것이다. 정당제도의 도입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져 1990년 10월경에는 구동독 주민의 75%가 자신의 지지 정당이 있다고 보았다.¹⁶⁾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다원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나서 북한의 정치 민주화를 지원하게 될 경우에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매 정당의 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한국 정당들은 지역적 구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 힘이 들 것이다.

한국의 자매 정당들이 그 성향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게 되면, 집권 노동당이나 위성 정당을 계승한 정당이 북한의 최대 정당으로 대두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북한의 지역 정당은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의 단결력이 매우 증대된다면, 지역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한국의 정당 구도가 지속되는 한 통일 한국의 최대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통일의 방식이 정당 구도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신속한 통일을 지지한 정당과 점진적인 방식을 선호한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통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한결같이 북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주거나 아니면 실망감을 주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정당에 대한 선호가 결코 다양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재한 북한의 정치 문화에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정당이 대두하

15) Segert und Machos(1995), S. 229.

16) B. Weßels(1992), "Bürger und Organisationen in Ost- und Westdeutschland: vereint und doch verschieden?," Eichener u. a. (Hg.), *Organisierte Interessen in Ostdeutschland, Marburg*, S. 23.

고, 인기주의적인 정치가가 통일 이후의 위기 상황을 가장 잘 활용하여 통일의 승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통일 이후의 정치 통합을 위한 대비책이 정부 차원에서만 마련되어왔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대표할 뿐이다. 독일의 정당 통합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정당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연구 조사와 정책 마련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당 발전을 위한 오늘의 노력은 현재의 정치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정치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㉞

참고 문헌

- 고상두(1997. 5.24), 「독일 통일과 과거 청산의 문제」, 한국국제정치학회 월례학술대회 논문집.
- 황병덕(1996), 「동서독간의 정치 통합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Ammer, Thomas(1992), "Parteien in der DDR und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 Mintzel und H. Oberreuther(Hg.), *Parteien in der BRD,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Förster Peter und Günter Roski(1992), *DDR zwischen Wende und Wahl*, Berlin: Links Druck.
- Lehmbruch, Gerhard, "Institutionen, Interessen und Sektorale Variationen in der Transformationsdynamik der Politischen Ökonomie Ostdeutschlands," *Journal für Sozialforschung*, 34. Jg., H. 1.
- Offe, Claus,(1994), *Der Tunnel am Ende des Lichts*, Frankfurt a. M.: Campus.
- Przeworski, Adam(1990), "Spiel mit Einsatz," *Transit - Europäische Revue*, H. 1.
- Segert, Dieter und Csilla Machos (1995), *Parteien in Osteuropa, Kontext und Akteure, Opladen. Spiegel*(1993), Nr. 3.
- Wepels, B.(1992), "Bürger und Organisationen in Ost-und Westdeutschland: vereint und doch verschieden?," Eichener u. a.(Hg.), *Organisierte Interessen in Ostdeutschland, Marburg*.